

하동군, 농산어촌개발사업 본격화… 면 단위 생활공간 재편

진교·고전·청암면 167억 투입
건강체육관 등 생활 인프라 조성
“농촌 활력회복 기반 만들어 갈 것”

하동군은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진행 중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며 농촌 생활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교·고전·청암면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총 167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체육·행정·복지·안전 기능을 집약한 면 단위 복합 생활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하동군은 지자체와 공사, 주민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진교면에서는 99억원이 투입된 ‘민다리복합센터’ 조성이 한창이다. 2026년 2월 말 완공을 목표로 내부 마감과 외부 부대 토목 공사가 진행 중이며 지상 3층 규모로 수영장과 체력단련실, 주민 빨래방 등이 들어선다. 농촌 지역에서도 도시 수준의 생활체육·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고전면 행정문화복합센터 조감도.

/하동군

청암면에서는 21억원을 들여 건강체육관을 조성하고 있다. 주민 체육 활동 공간은 물론 산별·이상 기후 등 재난 발생 시 대피소로도 쓸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기후 위기 시대 농촌 지역에 적합한 재난 대응형 생활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6년 준공 예정이다.

고전면에서는 노후 면청사를 철거하고 행정·복지·주민공동이용 기능을 모은 행정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총 47억원이 투입되며 기초생활거

점조성사업비 21억원과 공공청사 건립비 26억원이 반영됐다.

부지면적 2029㎡, 연면적 890.66㎡,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지며 1층에는 면사무소 등 행정 기능, 2층에는 주민 화합실·동아리실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실시 설계를 마치고 구청사 철거 후 본격 착공에 들어갔으며 202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들은 추진 과정에서 설계

변경과 사업지 조정 등으로 주민 의견 차이가 있었으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정상 궤도에 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면 단위 거점 복합화 모델은 시설 유지 관리 부담을 줄이고 공공 서비스 기능을 집약한 전략적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협약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정책 기조와도 부합한다.

이 같은 방식은 금남면에서도 추진하고 있으며 옥중면·악양면 역시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하는 등 하동군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행정·복지·문화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 거점을 재편하는 게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2026년까지 계획된 사업들을 안전하고 내실 있게 마무리해 농촌 공동체의 구심점이자 농촌 활력 회복 기반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

‘부산 안전 ON’ 시범 운영

부산시는 각종 재난·안전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 ‘부산 안전 ON’을 개설·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산 안전 ON’은 시민들이 일상 속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구축된 서비스다. 하천 수위나 풍향·풍속, 조위, 기상청 강우 정보, 산사태 취약지역 정보와 땅개짐 발생 현황, 지표투파레이더(GPR) 탐사 정보 등을 제공한다.

시는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 보완과 안정화 작업을 거친 뒤 5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울산시

공동주택 사업승인 위치도 공개

울산시는 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사업승인 위치도를 최신화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치도는 공동주택 사업승인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군별로 구분해 제작됐다. 각 사업장의 사업주체와 위치, 규모, 세대 수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해당 위치도는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 내 분야별 정보(건설·주택·토지)-주택허가-주택행정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분기별로 갱신돼 최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울산=이도식 기자

포항시

청년 취업준비 패키지 지원사업

포항시는 3일부터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의 구직 부담을 덜고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포항시 청년 취업 준비 패키지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포항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에서 34세까지의 미취업 청년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격증 응시료 연간 10만원, 전문 서적 구입비 연간 5만원, 면접 정장 대여비 연간 5만원 등 3개 항목을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운영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영천시

‘희망나눔캠페인’ 역대최대 모금

영천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한 희망2026나눔캠페인을 통해 총 11억 6500만원을 모금하며 목표액 6억원 대비 194%를 달성, 역대 최고 모금액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기 침체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기탁에 대한 시민들의 성숙한 인식과 이웃을 돕는 나눔 문화가 영천 지역사회에 깊이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개인 기탁자 250여 명과 기업·단체 400여 곳 등 각계각층이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하며 캠페인의 의미를 더했다.

/영천(경북)=김진수 기자 k0808862@



경북도는 지난달 31일 남구 송도부두에서 해오름대교 개통식을 개최했다.

/경북도

포항 남·북 잇는 ‘해오름대교’ 개통

인근 산단 출·퇴근 이동시간 단축
전망대 통해 동해바다 일출 조망

경북도는 지난 31일 포항시 남구 송도동과 북구 항구동을 잇는 해상교량 해오름대교 건설사업인 효자-상원 간 도로건설공사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도지사와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 경북도의회 지역 도의원,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효자-상원 간 도로는 연장 1.36km 구간으로, 교량 사장교 395m와 접속도로 965m로 구성됐다. 총사업비 748억원이 투입됐으며, 2021년 6월 28일 착공 이후 약 5년 만에 개통됐다.

이번 도로 개통으로 송도해수욕장과 영일대해수욕장 간 이동시간은 기존 10분에서 3~4분대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포스코 등 인근 산업단지 출·퇴근 차량의 이동시간도 줄어 도심 교통량 분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해오름대교에는 동해 바다의 일출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주탑 내부에 설치돼 시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다. 야간에는 사계절 경관조명이 운영돼 볼거리를 더하며, 포항국제불빛축제와 운하축제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역 상권과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김준환 기자 kih9@

울릉군, 15일부터 3일간 ‘윈터문화여행’

‘겨울에 더 빛나는 울릉’ 주제

울릉군은 겨울철 지역 문화 콘텐츠 확산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울릉 윈터문화여행’을 오는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울릉한마음회관과 나리분지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겨울에 더 빛나는 울릉’을 주제로, 단순 관람형 행사가 아닌 직접 타고, 걷고, 먹고, 즐기는 체험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됐다. 눈 내

린 섬의 정취를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울릉의 자연과 일상, 이야기를 하나의 여행 코스로 엮어 운영할 계획이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설국버스’가 마련된다. 울릉 일주도로를 따라 이동하며 겨울 풍경과 섬의 역사·이야기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투어로, 울릉을 처음 찾는 관광객은 물론 재방문객에게도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릉(경북)=박병률 기자 pbr34@

부산시, 계약심사로 예산 501억 절감

2024년 1조3247억 규모 사업 심사

부산시는 지난해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501억원의 예산을 아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2024년 한 해 동안 1517건, 총 1조 3247억원 규모의 사업을 심사한 결과 501억원을 절감하며 3.8%의 절감률을 기록했다.

계약심사는 사업 발주 이전에 원가산정이 적절한지 사전 검토해 예산 낭비를 막고 계약 대상의 품질을 높이는 제도다. 시는 제도 시행 이후 2025년까지 총 1만 9297건, 14조 6210억원을 심사해 5483억원을 절감했다.

시는 단가 조정뿐 아니라 현장 특성을 고려한 공법 개선과 설계 변경으로 예산 절감과 시공 품질 향상을 함께 추진했다. 복합타운 등 대규모 공사에서 흙막이 공법을 개선해 53억원(8.46%)을 절감했고, 배관 물량 산출방



식을 바꿔 과다 계상된 자재비와 노무비를 조정했다. 또 도로 개설 시 나오는 임목 폐기물을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인증 제도로 발전소에 무상 처리하도록 해 3억 9000만원을 아끼며 탄소 중립에도 기여했다. 갈리 용역비도 공사비 요율 방식 대신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해 6건에서 4억 2000만원을 절감했다.

박형준 시장(사진)은 “직무교육으로 심사 전문성을 높이고 심사 기간을 단축해 신속한 예산 집행을 도왔다. 전국 평균 절감률 2.5%를 넘는 3.8% 절감률을 달성했다”며 “올해도 계약심사를 철저히 진행해 예산 낭비를 막고, 절감한 예산이 시민 편의 시설 확충 등에 재투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이도식 기자

해남군, ‘공룡박물관’ 새단장 나서

올해 관람객 40만명 유치 목표

해남공룡박물관이 올해 관람객 40만명 유치를 목표로 대대적인 변신에 나선다. 군은 세계 최대 규모 공룡발자국 화석산지의 학술적·문화적 가치를 높여 공룡박물관의 위상을 강화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는’ 입체적 관람 환경을 조성해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 해남공룡박물관은 ‘남해안 공룡화석지’ 세계유산 등재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해남을 비롯해 여수, 보성, 화순, 고성 등 국내 화석산지 보유 시군과 연계해 역량강화 워크숍, 학

술 세미나를 연중 개최하며 공룡화석지의 가치를 재조명한다.

관람객들이 보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 확충도 실시한다. 박물관의 첫 인상인 안내데스크와 로비, 뮤지엄샵, 휴게공간 등이 대대적으로 리뉴얼된다.

어린이와 가족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연중 계속된다. 5월 어린이날을 전후해 해남공룡대축제가 열리며, 국립중앙박물관 국보순회전을 포함해 연간 10회의 기획전시, 거점 박물관·과학관과의 교류전시, 축제 및 명절 특별 공연 등을 진행해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